

‘대흔돈 순위싸움’ KIA, 안방서 상위권 도약 노린다



19~21일 키움·22~24일 LG와 홈 6연전 돌입

승률 0.500 리그 공동 5위·불펜 안정화 절실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홈 6연전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스윙스를 달성한 뒤 주말 두산베어스에게 스윙패를 당했다. 그 결과 53승 4무 53패 승률 0.500으로 승패마진 0을 유지했고, 순위는 공동 5위에 안착했다.

현재 프로야구는 선두권을 제외하면 치열한 순위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중위권에서는 매주 순위가 뒤바뀌며 만큼 대흔돈 양상이다.

KIA가 현실적으로 노리는 순위는 3위다. 이미 선두권과는 뒤집기 어려울 만큼 큰 격차다. 리그 1위 LG트윈스와 12.5게임차, 리그 2위 한화이글스와 10.5게임차다.

현재 리그 3위 롯데자이언츠와는 불과 2.5게임차다. 당초 큰 차이가 벌어져 있었으나, 롯데가 8연패를 당하면서 중위권과 격차가 좁혀졌다.

4위 SSG와도 1.5게임차다. 다만 공동 5위 kt위즈, NC다이노스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뒤에서는 리그 8위 삼성이 2.5게임차로 턱걸이 지 쫓아왔다.

즉 LG와 한화를 제외하면 3위부터 8위까지 누구든 포스트시즌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KIA는 이번 주 주중 리그 최하위 키움하이로즈, 주말 LG와의 경기가 예정돼있다. 이 기간 좋은 성적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상승과 하락의 분수령에 있는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타율 3위(0.279)를 달성했고, 홈런은 10개로 가장 많았다.

먼저 김선빈이 지난주 6경기에서 25타수 13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520으로 맹활약했다. 부상 복귀 이후 잠시 주춤했던 듯했다. 엄청난 상승세

를 보여주고 있다.

나성범도 6경기 18타수 6안타 1홈런 타율 0.333으로 회복세에 있다. 득점권에서는 큰 활약을 없었지만, 조금씩 타격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태균 역시 5경기 19타수 6안타 2홈런 3타점 타율 0.316의 호성적을 보였다. 그는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를 생산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 외에 오선우(6경기 타율 0.304), 김호영(6경기 타율 0.292) 등이 팀 타선에 힘을 보탤다.

마운드에서는 선발진이 힘을 내고 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지난주 2경기에서 14이닝을 소화하며 1승 10피안타 3사구 13탈삼진 평균자책점 0.00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항상 믿고 볼 수 있는 안정감을 선보이는 중이지만, 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수는 많이 챙기지 못했다.

수술 후 복귀한 이의리 또한 호투를 펼쳤다. 지난 16일 두산전에 선발로 등판, 75개의 공을 던져 6이닝 6피안타 7탈삼진 2자책으로 패투를 선보였다. 복귀 이후 첫 퀄리티스타트(QS)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불펜진이다.

후반기 KIA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이 5.47로 리그 9위다. 성영탁, 최지민 등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뒷문이 불안하다.

특히 정해영의 경우 후반기 8경기에서 7이닝 2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했다. 조상우 또한 평균자책점 10.13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

결국 KIA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난 17일 정해영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그의 마무리 자라는 전상현이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승부처가 9회보다 빠르게 찾아온다면 전상

현이 마운드에 오른다. 이후 성영탁, 조상우 등이 집단마무리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는 현재 불펜의 활약이 팀 승리로 직결되는 만큼, 빠른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KIA는 이런 상황에서 주중 경기를 키움과 치르게 된다.

키움은 현재

36승 4무 75패 승률 0.324로 리그 10위에 위치했다.

팀타율 10위(0.239), 평균자책점 10위(5.45)로 모두 KIA(팀타율 0.260·평균자책점 4.33)를 밀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6승 2무 4패로 KIA가 우위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매 경기 순위가 뒤바뀌 수 있는 만큼 KIA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날 키움은 19일 박주성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아담 윌러를 선발로 투입한다.

키움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같은 장소에서 LG를 상대한다.

대흔돈의 순위싸움을 펼치고 있는 KIA가 이번 주 안방에서 키움과 LG를 꺾고 상위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헤이스 멀티골’ 광주FC, 대전 꺾고 6위 도약

홈경기서 2-0 완승...‘태업 논란’ 아사니 복귀도

프로축구 광주FC가 헤이스의 활약을 앞세워 대전 하나시터즌을 제압했다.

광주FC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의 부진에 빠졌던 광주는 이날 승리로 9승 8무 9패 승점 35를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되찾았다.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신창무가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정지훈, 최경록, 주세중, 아사니를 배치했고 후반은 심상미,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정민이 썼다.

이번 선발 라인업에는 올 시즌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사니가 이름을 올린 게 눈에 띄었다. 올해도 광주와 계약이 끝나는 아사니는 내년 1월 자유계약으로 이란의 에스테그랄로 옮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 조기 이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양 구단이 이적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아사니는 종이리 통증을 핑계로 팀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아 ‘태업 논란’을 불렀다. 실제 지난

10일 포항전에서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그의 복귀에 눈길이 쏠렸지만, 경기 시작 후 관심은 헤이스에게 집중됐다.

헤이스는 전반 26분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상대 감독인 백패스를 가로챈 헤이스가 홀로 공을 뒀 수비수 김민혁을 피해 페널티아크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후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전반전은 1-0으로 끝이 났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정지훈 대신 허승운을 투입했다. 후반 15분에는 심상민과 주세중을 대신 오후성과 유재호를 투입하며 공세를 더했다.

경기는 후반 19분 완결히 기울었다.

오후성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이스가 골문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경기를 마무리 짓는 썩어골이었다. 오후성의 오프사이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비디오판독이 잠시 있었으나 득점 판정이 바뀌지는 않았다. 결국 대전이 추격골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2-0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박성현, LPGA 투어 ‘톱10’...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7위

박성현(31·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년 만에 ‘톱10’ 성적을 냈다.

박성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 72·649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2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2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의 성적을 낸 박성현은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성현이 LPGA 투어 대회에서 10위 이내 순위



3승, 2019년 2승을 수확하며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다.

2017년 US여자오픈, 2018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에서도 두 번 정상에 오른 박성현은 2017년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 상금왕을 석권했다.

LPGA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 상금왕, 신인상을 휩쓴 사례는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박성현이 두 번째였을 정도의 ‘사건’이었다.

이달 초 제주도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공동 11위로 선전한 박성현은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고, 이후 미국에서 치른 첫 대회인 포틀랜드 클래식 ‘톱10’을 찍으며 ‘부활’을 예고했다.

박성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초반에 경기가 뜻대로 잘 풀렸다”며 “후반 9홀에서는 짧은 퍼트를 놓치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19~24일 쿠로미 워크 개최

키움·LG전서 시구 등 이벤트 다채



KIA타이거즈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키움과의 홈경기과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LG와의 홈경기를 ‘쿠로미 워크’로 치른다.

KIA는 산리오코리아와 손잡고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쿠로미와의 콜라보 이벤트를 마련한다.

우선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포토존이 조성된다. 5번 출입구 앞 EV SPACE에는 쿠로미 에어별론이, 중앙출입구 앞에는 쿠로미 현수막이 설치된다.

3번 게이트 옆에는 쿠로미 포토월과 등산대가 설치돼 이 기간 동안 캠핑을 찾은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2일 LG전에 한해 쿠로미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증샷을 남

길 수 있는 ‘쿠로미 포토 타임’도 경기 전과 경기 중에 열린다.

키움과의 경기가 열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선수단은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타이거즈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면 쿠로미 응원 깃발 행진이 펼쳐지며, 홈런을 친 선수가 쿠로미 봉제인형 키링을 3루 서프라이즈석에서 관람하는 팬들에게 던져준다.

22일 LG전에는 쿠로미가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나선다. 또 이날 경기를 찾는 팬들에게 적인 인증용 쿠로미 스티커 카드도 나눠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은 최근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MBC 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은메달 1개·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국제대회 맹활약

금2·은1·동2개 획득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전문선수단이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세한공공스포츠클럽은 최근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MBC 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은메달 1개·동메달 2개를 획득, 유소

년부 3인조 단체전에서 남녀 단체우승의 영예까지 안았다.

남자 유소년 3인조 여성부·송주혁·박주환과 여자 카트 3인조 안영서·박인희·차아연(이상 세한공공스포츠클럽)이 각각 단체전 1위에 올랐다.

최공집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를 목표로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